

지역 매 아리

# 김제 신·재생에너지 토론회

23일 김제시민 화합 음악회

가을의 끝자락에 즐거움과 흥겨움을 함께하고자 대중가요로 구성된 '김제시민 화합 음악회'가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3일에 감동과 열정의 무대로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국민 농촌프로그램 대추나무 사랑결렸네 출연하여 배우로서 입지를 탄탄히 하고 가수로도 유명한 김성환이 출연하여 인생, 마지막여자, 물자마세요 등을 부르며 MC를 진행하고, 현재 가장 주목성 있는 아모르파티를 부른 김연자가 출연 10분내로, 수은등, 매들리를 부르고, 명품 가창력을 가진 김용인이 출연 부초같은 인생, 내장산을 부르며 이애란, 미스미스터, 두비, 김숙영 등이 출연하여 공연 분위기를 한층 더 흥겹게 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추억을 담아내는 다양한 대중음악의 최고의 뮤지션들이 출연하여 재미난 입담과 경쾌하면서 화려한 히트곡들로 관객을 깊은 감동의 시간으로 안내할 것이며 또한 공연을 통해 우리시민 안 모두가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문가와 시민 초청 지구온난화·미세먼지 논의

김제시는 최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최근 지구온난화 방지와 미세먼지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 및 시민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 성장 동력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들을 개선하여 안전한 친환경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 우리에게 직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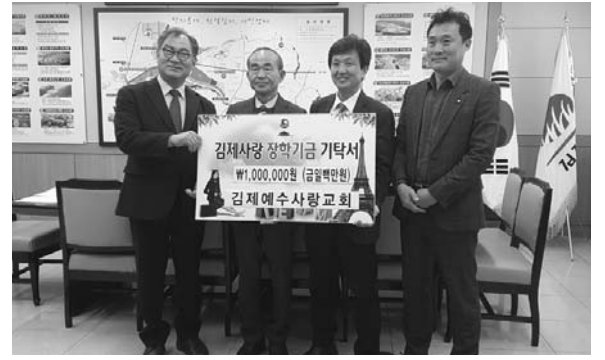
있는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지열·바이오 등) 사업의 중요성과 국가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영농태양광 발전시설분야, 수상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버려지는 폐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전북대 양오봉 교수 등 3명의 전문가와 시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시민 초청 토론회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 및 시민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제시광장장학재단은 최근 김제시 김산동 소재 김제예수사랑교회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 "지역사회 품은 꿈 있는 교회 되고파"

김제예수사랑교회, 김제시광장장학재단에 1백만원 기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를 품은 꿈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김제시광장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최근 김제시 김산동 소재 김제예수사랑교회(담임목사 최정호)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제예수사랑교회가 기탁한 장학금은 사랑나눔 바자회와 자원재활용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9백여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어 더욱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김제예수사랑교회는 2005년에 개척한 교회로 예방학원, 예방FC, 스키이축구교실, 피아노·기타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고, 매주 수요일 무료 급식소 운영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난방비, 쌀 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건전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최정호 목사는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광장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까지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인재양성의 소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최정호 목사는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광장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까지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인재양성의 소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드림스타트 아동권리교육

김제시 드림스타트센터(여성가족과장 신미란)는 최근 인지능력이 낮고 저항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을 배양 시켜줄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연계해 통해 참여아동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본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주장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기본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와 다양한 퍼즐게임을 통해 흥미롭고 재미있게 풀어내었다.

김모(초등 5학년)양은 "교육하시는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이야기 해주시고 게임과 놀이로 어려운 말들을 쉽게 풀이해 주어서 빨리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아동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존감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아동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드림스타트센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위기도 검사 등을 거쳐 345명 이상을 드림스타트아동으로 선정하고 보건·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아르메니아, 완주군 먹거리정책 배우다

중앙부처, 완주 로컬푸드 및 먹거리정책 벤치마킹

완주군의 로컬푸드와 먹거리정책을 배우기 위해 아르메니아 관계자들이 완주군을 직접 찾았다.

완주군은 아르메니아 중앙부처관계자 및 정책연수단이 지난 15일 완주군을 찾아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관련 시설 등을 방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아르메니아는 아시아 서부 및 러시아 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이날 아르메니아 농업부 소속 미카일 모스체노크과 관련 공무원 등 7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특히 농업의 기획생산체계와 관계시장 진출로 지난해 580억 매출을 달성한 로컬푸드와 공공학교급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푸드플랜 관련 먹거리정책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르메니아는 아시아 서부 및 러시아 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이날 아르메니아 농업부 소속 미카일 모스체노크과 관련 공무원 등 7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특히 농업의 기획생산체계와 관계시장 진출로 지난해 580억 매출을 달성한 로컬푸드와 공공학교급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푸드플랜 관련 먹거리정책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히, 푸드플랜 관련 먹거리정책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귀농귀촌인 인문학 교육으로 주민과 교류해요"

완주 '야생화·꽃·여행' 주제

완주군이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인문학 교육을 실시한다.

완주군은 농촌살이에 두려움과 설렘으로 귀농귀촌한 주민들과 원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인문학교육을 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8일 첫 수업을 시작하는 인문학 교육은 야생화, 꽃, 여행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강의와 체험을 연계한다.

첫날인 28일에는 박노복 농수산대 교수가 초빙돼 야생화에 대한 이야기와 알파체험을 실시한다.

내달 5일에는 '꽃같은 잡초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박석신 목원대 교수가 미세먼지제거식물 화분만들기를 실시한다.

마지막 강의인 12월 12일에는 산악 사진작가로 유명한 이상은 작가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여행이야기와 여행에 필요한 손잡기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히,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들과 이 주민과 어울리며 교류와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것으로 교육 중간 브런치타임도 실시해 친목을 도모한다.

신청방법은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261-3730)로 전화신청하면 되며, 각 과정당 30명 선착순 접수받는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하고 1만원의 교육비를 받는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직원들 정부혁신평가 포상금 지역사회 기부

사회소통기금에 250만원 전달

'2017년 지자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완주군의 유공부서들이 포상금을 쾌척했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5개 유공부서인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교육아동복지과, 공동체협력과, 이서면이 1111사회소통기금에 총 25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국무총리 표창으로 유공부서 5곳에 각 10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았다.

정희정 기획감사실장은 "지역주민의

동참과 협력으로 정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됐다"며 "포상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직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수상한 부서 직원들과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111 사회소통기금'은 현재까지 6억7000만원을 모금했으며, 공무원, 주민과 기업 등 1100여 명이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에도 '1111사회소통기금'에 후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